벤처창업연구 제14권 제1호 (통권61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4 No.1 pp.73-83

창업가 역량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제도 매개효과 중심으로

안태욱 (군산대학교 창업전담 교수)*
한동희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팀장)**
강태원 (군산대학교 물류학과 부교수)***

국 문 요 약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생의 진로를 창업으로 결정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창업 실패율은 여전히 높고, 창업성과가 미비하여 질적인 수준은 매우 낮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 역량특성,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8월30일까지 전라북도의 7년 미만 창업가를 대상으로 361개의 유효데이터를 수집하여 SPSS 21.0, AMOS 21을 통해 연구검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창업가 역량특성(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기술적 역량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가 역량(기업가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증명되었다. 단,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성과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셋째, 창업지원제도는 창업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창업지원제도는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성과 사이에 매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기업들의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가 역량 함양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창업지원제도 활용은 직·간접적으로 창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창업지원 및 활용하는 것이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가 역량특성,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창업지원제도, 창업성과

Ⅰ. 서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국정과제를 일자리창출로 잡고 있는 정부에서는 청년실업률 증가, 고용률 저하, 기업의 도산, 직장의 명퇴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기반의 부정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창업이 실질적인 국가 경제성장과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미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실증 사례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창업이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증명을 하고 있다. 미국의 벤처 창업기업 5%가 신규고용을 50%이상 창출시킨다는 통계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창업기업들이 고용창출 효과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검증되었다. 그럼으로 경제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은 반드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자의적·타의적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인 창업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율도 높고, 창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즉, 창업에 대한 성과가 높지 않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질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창업지원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면, OECD 가입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수하고, 적극적 창업지원 정책을 수립되어 있다. 이에 단순히 창업지원제도와 정책만을 본다면 국가적으로 상위 수준에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포함된다.

2012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기업생멸행정통계」[1]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면 대한민국의 창업 실태에 대한 자료와 국가적 비교를 보다 면밀하게 실시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자료는 유럽 통계청과 국제적인 OECD (Eurostat-OECD)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어졌다. 본 자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창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

* 주저자, 군산대학교 창업전담(산학협력중점) 교수, helloceo777@gmail.com
** 공동저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팀장, han@jbba.kr
*** 교신저자, 군산대학교 물류학과 부교수, twkang@kunsan.ac.kr
· 투고일: 2018-11-11 · 수정일: 2019-02-14 · 게재확정일: 2019-02-26
1) 통계청에서 발표한「기업생멸행정통계」자료참조, OECD and Eurostat(2007),"Eurostat-OECD Manual on Business Demography Statistics"를 참고

업성과 측면 부정적인 요소들과 개선할 부분이 많다.

다양한 창업지원과 관심으로 인하여 양적 성장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질적인 성과는 여전히 낮고 실질적인 창업을 통한 효과와 성과는 향상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고용위기, 실업률 상승, 경제의 불확실성에 의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업을 장려하기 보다는, 창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창업성과를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창업가 역량 특성 부분과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매개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가의 역량의 특성부분과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매개효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창업기업의 향후 창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2.1 창업가역량

창업 초창기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업가의 다양한 역량과 경험이 요구된다. Boyatzis(1982)는 '역량을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때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힘'이라고 정의하였다. 창업가의 지식, 스킬 그리고 능력이 초창기 창업기업이 보유한 희소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자원임으로 경쟁사가 쉽게 개발하거나, 모방하기 어려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업가의 개인적인 역량이 바로 창업기업의 경쟁적 우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요소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Tehseen & Ramayah, 2015).

창업환경에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창업가의 의사결정은 사업에 있어서 성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에 신중해야한다. 창업역량은 창업자의 마인드에 해당하는 정신 (Spirit)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활동, 과정을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춘엽, 1997). 여전히 창업가 역량에 대한 정의를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Aspelund et al.,(2005)의 연구에서 창업기업의 경우 자원 개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창업가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인력조직, 자금, 네트워킹 등 모든 부분에서 자원이 부족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가의 의지와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Horne(1992)의 연구에 의하면 경쟁력 획득과정에서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가의 역량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안태욱·강태원(2017)은 창업가역량을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으로 분류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Morris et al.,(2013)의 연구를 통해 기회인식을 포함한 13가지 세부 창업가역량을 구분하였다.

Chandler & Jansen(1992)의 연구에서 창업가의 역량부분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업가적 능력, 둘째 관리적 능력, 마지막으로 기술적·기능적 능력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andler & Jansen(1992)의 연구에서 활용한 창업가 역량 특성을 기본으로 채택하여 실증분석 연구에 활용하였다.

2.2 창업지원제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성장하였고, 지식정보화 시대부터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여 대량생산체제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지원 시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설정 아래 창업자금, 창업절차 간소화, 창업정보제공, 창업보육센터 건립으로 신규 창업 인큐베이터 시스템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체제 및 제도를 수립하였다. 1986년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최초로 제정이후 "신기술 사업 금융지원법" 등 지속적으로 창업지원을 위한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창업기업을 육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창업율을 증가하였다. 김창봉·이승현(2017)은 창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링, 사업화 지원을 1차적으로 분류하였고, 2차로 정책자금 운영금융, R&D 연구자금, 투자 등으로 분류, 마지막으로 창업공간, 시설, 판매 및 마케팅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창업지원제도는 많은 창업가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의미하여, 최근 한국에서도 창업지원제도를 독립변수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안상봉·신용준(2017)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해서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직접 지원제도 (조세지원과 금융지원)와 간접지원제도로 나누어 창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연구를 하였다. 임교순·전인오(2015)의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제도를 정부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영지원, 기술지원, 금융지원, 조세지원, 창업인프라지원 등 모두 5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김창봉·이승현(2017)은 창업지원제도를 정책지원과 자금지원으로 구분하여 정책지원은 기회활용, 자금지원은 기회발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창업지원제도는 기업에만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대학생 창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성욱·이운식(2016)은 대학생이 창업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동아리 지원 사업, 아이템사업화 지원 사업 등 창업선도대학 참여 경험 등,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교순·전인오(2015)과 정상철·김영진(2017)의 연구에서 활용한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 지원제도에 대한 측정항목을 구성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창업성과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성과를 단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연구되었다(신유섭·최명길, 2010). 창업성과를 성장률, 수익률, 만족도, 시장점유율 등 운영에 대한 성과와 경쟁기업 대비 경쟁력 성과 측면으로 개념화 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창업성과의 개념을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Tsai(1991)은 창업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양 측면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수의 창업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객관적인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주관적인 지표 (조직유효성, 인지된 성과 만족도 등)가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Chandler & Hanks(1994) 창업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성과를 매개효과로 분석한 연구에서 재무적 성과 관점에서는 매출액 증가액, 투자수익률, 수익성,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으로 보았다. 반면 Dess & Robinson(1984)의 연구에서 주관적인 성과측정 방법이, 기업의 보다 실제적인 측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비재무적 성과 지표는 주로 고용율, 창업 만족도 등도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

Vesper(1980)는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으로 재무적 지표 (ROE, ROS, ROI), 비재무적 지표 (제품혁신, 성장률, 시장점유율), 주관적 지표 (사회적 책임, 근로생활 질, 만족도)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하였다.

Vroom(1964)이 제시한 기대이론을 활용하여 자아실현, 노력, 주변인식, 경제적 성공, 성과, 보상, 역할, 혁신, 독립으로 구분하여 창업성과를 연구하였다(Linda et al., 2010). 김남기 외 (2014) 연구에서는 창업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되거나, 창업의 성과를 성공과 실패로 확정되는 시점에 Linda et al.(2010)의 연구에서 측정한 경제적 성공, 혁신, 역할, 독립을 확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창업이후 장기간 소요되는 시점에서 창업지원 혜택에 대한 만족도 측정은 정확한 분석에 활용될 수 없다고 하여, 비교적 짧은 상황에서 창업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아실현과 주변인식의 변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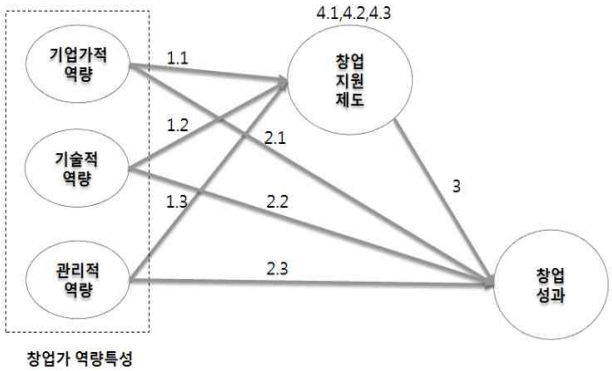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성과 만족도 부분에서 자아실현, 주변인식 변수를 활용하고 창업기업의 측면에서 금전적 성공, 혁신 변수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창업가 역량특성, 창업지원제도, 창업성과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진행하였다.

독립변수로 창업가 역량특성을 기업가적 역량, 기술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매개변수인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기업에 지원되는 정부의 조세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창업인프라지원을 고차방정식으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창업성과도 자아실현, 주변인식, 금전적 성공, 혁신을 고차방정식으로 설정하였다. 변수간의 관계를 토대로 첫째, 기업가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으로 이루어진 창업가 역량특성이 창업지원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창업가 역량특성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창업지원제도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가 역량특성이 창업성과에 매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그림 1>과 같이 수립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설정

3.2.1 창업가 역량특성과 창업지원제도

이상화·하규수(2010) 연구자들은 창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 지원과 수혜를 받았을때 창업만족도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박남규(2015)의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참여한 창업기업 331명의 대상으로 창업가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창업가의 역량특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혼재되어있지만 창업가의 역량특성에 대한 창업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창업성과를 위한 중요한 요인인 창업가 역량특성과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탐색적 연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수립을 하였다.

가설1: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창업지원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창업가의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창업가의 관리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가 역량특성과 창업성과

최근 선행연구에서 창업가 역량특성과 창업성과와의 유의미한 영향관계에서 대해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김형철 외(2015)는 청년들의 창업가 역량 (기업가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이 창업성과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혜영·김진수(2018)는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오혜미 외(2017)는 여성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2: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 창업가의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창업가의 관리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3 창업지원제도와 창업성과

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민간영역의 창업지원기관들이 창업기업을 성장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리적 지원을 기본으로 정책자금 등 다양한 방향과 방법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영주·양영석(2018)은 충청도 소재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김창봉·이승현(2017)의 연구에서도 1인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여 의미 있는 연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김상순 외(2012)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지원서비스, 자금지원서비스, 경영지원서비스로 구성된 정부지원서비스가 창업과정 특성과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을 활성화 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3: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창업지원제도의 매개효과

김용식·하규수(2011) 연구에 의하면 전역예정인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내·외적 요인과 창업의욕 사이에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사회적 인식과 창업의욕 사이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들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제도에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가 있으며, 김태형 외(2010)는 기업의 시장기반 마케팅 자원이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초기에는 지식이나 정보 등의 수출지원제도가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기업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수립을 하였다.

가설4: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4-1: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가의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4-2: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4-3: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가의 관리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표 1>과 같이 기업가적 역량, 기술적 역량, 관리적 역량으로 구성된 창업가 역량특성이 모두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창업 인프라지원으로 구성된 창업지원제도가 모두 2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자아실현, 주변인식, 금전적 성공, 혁신으로 구성된 창업성과는 두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지원제도와 창업성과의 요소들은 이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실제로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창업가 역량특성과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각 문항별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였다. 총 361개의 유효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요인		측정항목	비고(출처)	문항수
창업가 역량특성	기업가적 역량	사업성공을 위한 열정, 업종 및 아이템 식별능력, 고객의 요구 대처 능력, 네트워킹 능력	Chandler & Jansen(1992), 김형철 외(2015), 김완재·정화영(2007)	4
	기술적 역량	기술혁신능력, 전문적인 지식,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 사용 능력, 기술전문가		4
	관리적 역량	감독능력, 조직장악능력, 권한위임능력, 조직구성원들과 비전 공유 능력		4
창업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 조세전문가 지원제도 등	임교순·전인오(2015), 정상철·김영진(2017)	5
	금융지원제도	창업지원금 지원, 정책자금(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등		5
	기술지원제도	기술지도, 신제품 개발 지원, R&D기획지원사업		5
	경영지원제도	창업관련교육, 컨설팅지원, 경영지도		5
	창업인프라지원제도	공간제공, 규제완화, 연구기자재 지원		5
창업성과	자아실현	자기 자신에게 도전, 개인적 비전 달성, 동기부여, 지속적 성장하기 위한 배움	Linda et al.(2010) 정대용 외(2012) 김남기 외(2014)	4
	주변인식	목표달성, 주위로부터의 인정, 좋은 지위		4
	금전적 성공	개인적 소득, 가족에게 금전적 안전 제공, 높은 소득 창출기회, 자녀들이 상속받을 기회 창출		4
	혁신	기술중심, 제품아이디어개발, 조직에 대한 영향력		4

IV.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모집단 표본에 관한 인구통계 분석은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전라북도 경제통상원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90명으로 24.9%, 여성이 271명으로 75.1%로 나타났으며, 종업원 수는 1명~3명 미만이 169개 46.8%, 4명~5명이 89개로 5명이하의 창업기업 비율이 70%이상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의 사업 분야는 기계가 13개, 전기전자 20개, 정보통신 33개, 화학 13개, 바이오 12개, 식품 79개, 기타가 191개로 다양한 사업 분야의 직군이 포함되었다. 또한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이 55개로 15.2%, 1년 이상~5년 미만이 113개로 31.3%, 3년 이상 ~ 5년 미만의 기업이 107개로 26.6%, 5년 이상 7년 미만이 23.8%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2> 인구통계학적분석

특성	구분	기업수	비율(%)	특성	구분	기업수	비율(%)
성별	남성	90	24.9	종업원수	3명이하	169	46.8
	여성	271	75.1		4명~5명	89	24.7
사업분야	기계	13	3.6		6명~7명	35	9.7
	전기전자	20	5.5		8명~9명	22	6.1
	정보통신	33	9.1		10명이상	46	12.7
	화학	13	3.6	업력	1년미만	55	15.2
	바이오	12	3.3		1년이상~3년미만	113	31.3
	식품	79	21.9		3년이상~5년미만	107	29.6
	기타	191	52.9		5년이상~7년미만	86	23.8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기업가적 역량, 기술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특성으로 구성된 창업가 역량특성이 창업지원제도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수립된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위한 신뢰성 검토를 위하여 <표 3> SPSS 21.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측정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Chronbac's α
기업가적 역량1	0.187	0.753	0.112	0.356	0.308	.931
기업가적 역량2	0.124	0.823	0.107	0.233	0.280	
기업가적 역량3	0.114	0.847	0.048	0.235	0.234	
기업가적 역량4	0.076	0.841	0.043	0.269	0.194	
기술적역량1	0.124	0.304	0.160	0.772	0.262	0.884
기술적역량2	0.068	0.283	0.172	0.710	0.295	
기술적역량3	0.061	0.249	0.136	0.746	0.215	
기술적역량4	0.101	0.258	0.157	0.764	0.306	
관리적역량1	0.121	0.277	0.199	0.296	0.704	0.854
관리적역량2	0.039	0.294	0.108	0.249	0.724	
관리적역량3	0.086	0.309	0.169	0.250	0.700	
관리적역량4	0.122	0.176	0.191	0.294	0.794	
창업지원제도1	0.797	0.109	0.150	0.044	0.075	0.929
창업지원제도2	0.889	0.090	0.095	0.099	0.011	
창업지원제도3	0.883	0.084	0.125	0.108	0.045	
창업지원제도4	0.878	0.076	0.113	0.087	0.096	
창업지원제도5	0.860	0.072	0.200	-0.002	0.136	
창업성과1	0.203	0.055	0.891	0.051	0.069	0.918
창업성과2	0.135	-0.012	0.882	0.178	0.032	
창업성과3	0.163	0.165	0.784	0.214	0.272	
창업성과4	0.237	0.126	0.792	0.152	0.401	
고유치	3.999	3.345	3.156	2.982	2.976	
설명분산 %	19.045	15.929	15.030	14.200	14.173	
누적분산 %	19.045	34.974	50.004	64.204	78.378	

분석 결과 기업가적 역량, 기술적 역량, 관리적 역량, 창업지원제도, 창업성과를 포함하여 모두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총 누적설명력은 78.378%로 조사되어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5개 요인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업가적 역량이 0.931, 기술적 역량이 0.884, 관리적 역량이 0.854, 창업지원제도는 0.929, 창업성과가 0.918로 5개 변수의 chronbacs α 계수가 모두 0.8이상으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가 일관된 데이터임을 알 수 있다.

4.3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CR),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조0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χ^2(카이자승 통계량)= 925.085와 DF(자유도)= 114(CMIN/DF= 4.418)로 나타났다. 우선 평균분산추출(AVE)값은 개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로 0.7이상인 경우 수용가능한 수준이다.

<표 4>와 같이 계산된 평균분산 추출 값은 기업가적 역량이 .973, 기술적 역량이 .937, 관리적 역량이 .936, 창업지원제도가 .966, 창업성과가 .962로 수용 가능한 0.7을 초과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명	표준화된 적재량	표준 오차	CR	평균분산추출 (AVE)	개념신뢰도 (C.R.)
기업가적역량1	0.886	0.074		.973	.900
기업가적역량2	0.887	0.086	23.925		
기업가적역량3	0.883	0.085	23.685		
기업가적역량4	0.857	0.096	22.315		
기술적역량1	0.863	0.127		0.937	0.790
기술적역량2	0.786	0.203	17.349		
기술적역량3	0.734	0.244	15.763		
기술적역량4	0.857	0.127	19.44		
관리적역량1	0.805	0.161		0.936	0.785
관리적역량2	0.744	0.195	14.727		
관리적역량3	0.766	0.189	15.239		
관리적역량4	0.846	0.139	16.973		
창업지원제도1	0.753	0.184		0.966	0.764
창업지원제도2	0.862	0.099	17.035		
창업지원제도3	0.879	0.103	19.021		
창업지원제도4	0.873	0.13	21.798		
창업지원제도5	0.852	0.12			
창업성과1	0.818	0.122	17.175	0.962	0.863
창업성과2	0.782	0.207	17.57		
창업성과3	0.844	0.091	17.429		
창업성과4	0.936	0.035	16.958		

개념 신뢰도(C.R.)는 모형의 평가를 위한 지표로 0.5이상인 경우 수용가능한 수준이다(Yu 2012; Chin 1998; Fornell and Larcker 1981). 분석결과 산출된 개념 신뢰도 값은 모두 0.7을 넘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변수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0.6 이상인 경우 수용가능수준이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 적재량 값도 기술적 역량 3이 0.734로 가장 낮았으며, 창업성과 4가 0.936으로 가장 높아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에 필요한 3가지 지표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적일관성을 갖춰 타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4.4 상관관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검증된 5개 변수에 대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가의 역량 특성인 기술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간의 상관계수가 0.693로 가장 높은 관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업가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이 0.661, 기업가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이 0.646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측정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기업가적역량	4.071	0.557	1				
기술적역량	3.958	0.615	.661**	1			
관리적역량	4.057	0.576	.646**	.693**	1		
창업지원제도	4.100	0.604	.280**	.252**	.264**	1	
창업 성과	3.980	0.557	.289**	.424**	.458**	.380**	1

4.5 연구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수립된 연구모형과 가설은 AMOS 21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의 분석한 결과 X^2=925.085(p=.000), GFI=0.803, NFI=0.851, CFI=0.876, RMSEA=1.06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각 가설은 도출된 경로계수와 유의수준으로 창업가 역량특성과 창업지원제도를 검증한 결과 창업가의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에 미치는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178(p=0.002), 관리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에 미치는 표준화된 경로계수는 0.126(p=0.028)로 가설 1-1과 1-3이 채택되었으나 기술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즉,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창업가 역량특성에서 기업가적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기술적 역량은 창업지원제도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술적 역량의 경로계수는 0.193(p=0.000)이며, 관리적 역량의 경로계수는 0.49(p=0.000)로 가설 2-2와 2-3은 채택되었다. 다만, 기업가적 역량의 경로계수는 0.318(p=0.004)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어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또한 가설 4-1은 창업지원제도가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성과에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으며, 창업기업은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에 비로소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제도는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0.289(p=0.000)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S.E.	C.R.	P	결과
가설1-1	**기업가적역량 ⇒ 창업지원제도**	**0.178**	**0.053**	**3.175**	**0.002**	**채택**
가설1-2	기술적역량 ⇒ 창업지원제도	0.083	0.046	1.468	0.142	기각
가설1-3	**관리적역량 ⇒ 창업지원제도**	**0.126**	**0.052**	**2.195**	**0.028**	**채택**
가설2-1	기업가적역량 ⇒ 창업성과	-0.137	0.045	-2.908	0.004	기각
가설2-2	**기술적역량 ⇒ 창업성과**	**0.193**	**0.039**	**4.016**	***	**채택**
가설2-3	**관리적역량 ⇒ 창업성과**	**0.49**	**0.05**	**8.967**	***	**채택**
가설3	**창업지원제도 ⇒ 창업성과**	**0.289**	**0.051**	**5.71**	***	**채택**
가설4-1	**창업지원제도는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성과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가설4-2	창업지원제도는 기술적 역량과 창업성과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가설4-3	창업지원제도는 관리적 역량과 창업성과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X^2=925.085(p=.000), GFI=0.803, CFI=0.876, NFI=0.851, RMSEA=1.06						

*** p<0.01

4.6. 매개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창업가의 기업가적 역량, 기술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창업지원제도의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는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고, 유의확률은 Two Tailed Significance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78(p=0.07), 창업기업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37(p=0.094), 간접효과는 0.051(p=0.028), 총효과는 -0.086(p=0.184)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제도는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설 4-1은 채택되었다.

창업가의 역량특성 중 기술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083(p=0.191), 창업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93(p=0.192), 간접효과는 0.024(p=0.192), 총효과는 0.217(p=0.016)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26(p=0.102), 창업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49(p=0.011), 간접효과는 0.036(p=0.066), 총효과는 0.526(p=0.01)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제도는 기술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에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역할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설 4-2, 4-3은 기각되었다.

<표 7> 창업지원제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매개효과		기업가적역량	기술적 역량	관리적 역량	창업지원제도
창업지원제도	직접효과	0.178(p=0.07)	0.083(p=0.191)	0.126(p=0.102)	
	간접효과		-	-	
	총효과	0.178(p=0.07)	0.083(p=0.191)	0.126(p=0.102)	
창업성과	직접효과	-0.137(0.094)	0.193(p=0.021)	0.49(p=0.011)	0.289(p=0.007)
	간접효과	0.051(p=0.028)	0.024(p=0.192)	0.036(p=0.066)	-
	총효과	-0.086(p=0.184)	0.217(p=0.016)	0.526(p=0.01)	0.289(p=0.007)

***0.001이하 수준에서 유의, **0.05수준에서 유의, *0.1수준에서 유의)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고용증 저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되면서 창업지원제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창업가의 역량특성과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전북통상진흥원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창업가 역량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역량 중에서 기업가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 가설 1-1과 1-3은 채택되었다. 특히,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창업가 역량 특성 중에 '기업가적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설 1-2의 경우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은 창업지원제도의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보다, 기업가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을 포함한 비즈니스 역량을 보유한 창업가가 창업지원제도를 훨씬 잘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창업기업의 경우 기술 중심의 역량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마인드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창업가 역량특성 (기업가, 관리적, 기술적)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증명되었다. 이는 김형철 외(2015) 연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단,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성과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가설 2-1이 기각되었다.

셋째, 창업지원제도는 창업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김창봉·이승연(2017)연구와 일치하며,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창업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초창기 창업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로 창업지원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연구 결과이다.

끝으로 창업지원제도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가설 4-1, 4-2, 4-1 중에서 가설 4-1 채택이 되어,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성과 사이에 매개효과를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업지원제도는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성과 사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이다. 창업가 역량 중에서 다른 역량보다 열정, 업종 및 아이템 식별능력, 고객 대처능력, 네트워킹 능력이 포함된 기업가적 역량이 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창업성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서 밝혔다. 이는 결론적으로 창업지원제도는 창업가의 역량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문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가 역량특성에 대한 함양이 창업성과에 긍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었고, 기업가적 역량과 창업성과에 사이에서도 창업지원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의 방법에서 창업성과에 대한 변수를 고차요인모델 2차 수준으로 이루어진 CFA (second-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2차 요인모델로 분석하였다. 그럼으로 4개의 관측변수에 대한 주관적, 재무적, 비재무적 창업성과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 값을 도출하지 못한 연구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창업성과 측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REFERENCE

김남기·배병렬·이광행·한동희(2014). 창업의도와 성장의도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지원사업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643-666.

김상순·김종원·양영석(2012). 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벤처창업연구*, 7(2), 167-175.

김성욱·이운식(2016). 창업지원제도가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6(6), 155-172.

김용식·하규수(2011). 전역예정 직업군인의 내적· 외적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2(5), 2078-2086.

김완재·정화영(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2(3), 33-60.

김창봉·이승현(2017). 창업지원제도가 1 인창업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2(2), 41-54.

김태형·강낙중·서민교(2010). 시장기반 마케팅자원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수출지원제도의 조절효과: 자원준거관점을 배경으로, *무역학회지*, 35(5), 183-203.

김형철·임아름·김권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사전준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8(2), 27-58.

박남규(2015).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춘엽(1997). 한국과 미국의 창업지원체계의 비교: 벤치마킹식 접근, *중소기업연구*, 19(1), 251-277.

신유섭·최명길(2010). IT창업기업의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 학회논문지*, 11(7), 2371-2385.

안상봉·신용준(2017).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경영사학*, 82, 149-172.

안태욱·강태원(2017). 창업가 역량이 취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 매개효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20(5), 81-89.

오혜미·이창영·김진수(2014). 여성창업가의 심리적, 환경적, 개인적 특성이 창업동기와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2), 45-60.

이상화·하규수(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플로우(Flow)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37-150.

이영주·양영석(2018). 창업가가 인식한 정부창업지원사업 중요도와 만족도 및 기대충족도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1), 31-41.

이혜영·김진수(2018). 초기 및 후기 기술창업기업 창업가의 역량 모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4), 99-116.

임교순·전인오(2015). 창업지원제도가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컨텐츠학회*, 15(11), 422-432

정대용·첨희·한관섭(2012). 창업활동이 성장의도를 매개로 창업결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중 중소기업 창업가의 특성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7(1), 97-122.

정상철·김영진(2017).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창업가 정신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부산·경남 지역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7(3), 55-70.

An, S. B., & Shin, Y. J.(2017).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Measures of Start-Up Support System of Korea, *Management Research,* 82, 149-172.

Ahn, T. U., & Kang, T. W.(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Capability on the Employment Volition: Focused on the Mediator Effect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20(5), 81-89.

Aspelund, A., Berg-Utby, T., & Skjevdal, R.(2005). Initial resources' influence on new venture survival: a longitudinal study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Technovation,* 25(11), 1337-1347.

Boyatzis, R. E.(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Chandler, G. N., & Ja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 223-236.

Chandler, G. N., & Hanks, S. H.(1994). Market Attractiveness, Resource-based Capabilities, Venture Strategies,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4), 331-349.

Chung, D. Y., Zhanxi., & Han, G. S.(2012). The Effects of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n Entrepreneurial Outcome Satisfaction Mediated by the Growth Intention: Focused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and Chinese Entrepreneurs,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7(1), 97-122.

Dess, G. G., & Robinson Jr, R. B.(1984). Measur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Absence of Objective Measures: the Case of the Privately-Held Firm and Conglomerate Business Uni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5(3), 265-273.

Horne, A.(1992). The Origins of Entrepreneurship, Inc. *Magazine,* June, 49-62.

Im, G. S, & Jeon, I. O.(2015). A Study on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he Potential Founde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1), 422-432

Jung, C. S., & Kim, Y. J.(2017).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Achievement Considering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Start-Up Companies in Busan and Kyungnam Regions,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7(3), 55-70.

Kim, C. B., & Lee, S. H.(2017). A Study on Influence of Entrepreneur Behavior Characteristics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Entrepreneurial Support 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41-54.

Kin, H. C., Im, A. R., & Kim, K. P.(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8(2), 27-58.

Kim, N. G., Bae, B. R., Lee, K. H., & Han, D. H.(2014).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Growth Intention on Start-up Firm Outcom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atisfaction of SME Support Program, *Proceedings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643-666.

Kim, S. S, Kim, J. W., & Yang, Y. S.(2012). A study on Assessing Positive Impacts to Small Business Startups by Government Policy of Promoting Small Busin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2), 167-175.

Kim, S. U., & Lee, W. S.(2016).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Leading Universities for Start-up Business Program,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6(6), 155-172.

Kim, T. H, Kang, N. J., & Seo, M. K.(2010).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Market-based Marketing Resources on Export Performance and Mediating Role of EAPs: A Resource-based Perspective.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35(5), 183-203.

Kim, W. J., & Chung, H. Y.(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Firm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3), 33-60.

Kim, Y. S., & Ha, K. S.(2011). A Study o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Korean Professional Soldiers Waiting for Retire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5), 2078-2086.

Lee, S. H., & Ha, K. S.(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37-150.

Lee, Y. J., & Yang, Y. S.(2018).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Competency Model in Early-and Late-Stage Technology-Based Ventur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99-116.

Lee, H. Y., & Kim, J. S.(2018). The Impacts of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ial Teams' Competency on the Performance of New Technology-Based Startup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2), 31-56.

Linda, F. E., Candida, G. B., Tatiana S. M., & Patricia G. G.(2010). Start-up Motivations and Growth Intentions of Minority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8(2), 174-196.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Oh, H. M., Lee, C. Y., & Kim, J. S.(2013). The Study on the Women Entrepreneurs' Psychological, Environmental, Personal Factors Affecting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45-60.

Park, N. G.(2015).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 and the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Park, C. Y.(1997). A Comparison of the Business Start-Up Support System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 Benchmaking Approach,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19(1), 251-277.

Sin, Y. S., & Choi, M. G.(2010). A Study on Success Factors for Entrepreneurs in IT Venture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7), 2371-2385.

Tsai, W.(1991).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4), 464-476.

Tehseen, S., & Ramayah, T.(2015).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SMEs Business Success: The Contingent role of External Integration,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6(1), 50.

Vesper, K. H.(1980). Research on Education for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dited by Calvin A. Kent, Donald L. Sexton, Karl H. Vesper, *Prentice-Hall*, 318-351.

Vroom, V. H.(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Wiley

The Effects of Entrepreneur Competence Characteristics on Start-Up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art-Up Support System

Ahn, Tae-Uk*
Han, Dong-heuy**
Kang, Tae-Won***

Abstract

As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tart-up increases, the number of entrepreneurs who decide to start their career is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the rate of start-up failure is still high and the qualitative level is very low due to lack of start-up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capability and start-up support system on start-up performance.

To that end, 361 valid data were collected from businesses that were established less than seven years ago in Jeollabuk-do on August 1, 2018 and used for study verification through SPSS 21 and AMOS 21.

First, the entrepreneurial competence (entrepreneurial competence, managerial competen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tart-up support system and the technical competency has no significant effect. Second, entrepreneurial competence (entrepreneurial competence, managerial competency, technical competenc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However, entrepreneurial competence has a meaningful effect on the start-up performance of entrepreneurs with a negative (-) effec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start - up support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tart - up performance. Finally, the start - up support system proved to have mediating effect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start - up performanc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order to increase the start-up performance of the start-up companies, it is proved that increasing the capacity of the start-ups is an important factor. In addition, empirical studies have proved that the use of start-up support system is an important factor that directly or indirectl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tart-up performance, We have made meaningful implications that actively supporting and utilizing entrepreneurship is necessary to enhance start-up performance.

Keywords: Entrepreneurial competence characteristics, Entrepreneurial Competence, Managerial Competence, Technical Competence, Start-up Support System, Business Start-up Performance

* First Author, Entrepreneurship Profess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helloceo777@gmail.com
** Second Author, Team Leader, Jeonbuk Business Agency, han@jbba.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ogistics, Kunsan National University, twkang@kunsan.ac.kr